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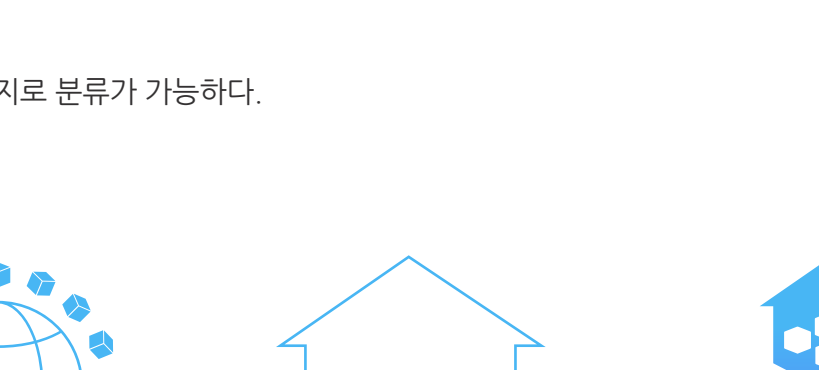
OZEX Lightpaper

(Korean)

1

블록체인(Blockchain)

1.1 블록체인의 기술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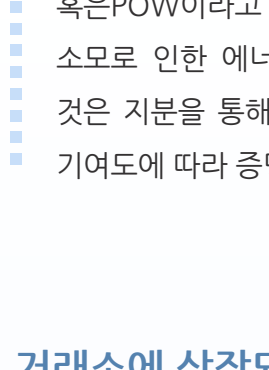
비트코인의 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사회 각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여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점은 ‘투명성’이며, 그를 기반으로 한 ‘신뢰’는 향후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투명성 뿐 만 아니라 거래기록 데이터가 변경 불가능한 ‘변경 불가능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만드는 ‘분산성’ 또한 블록체인의 큰 장점이다.

블록체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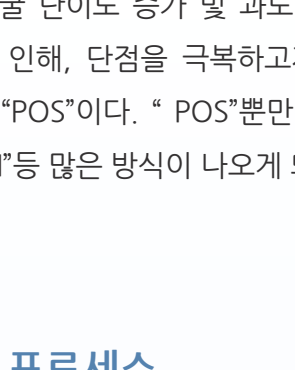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하나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참여자가 제한, 허가된 기관만 열람이 가능 트랜잭션 생성 제한적



컨소시움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움을 이뤄 구성하는 블록체인, 허가된 기관만 네트워크에 참여가능

1.2 블록체인과 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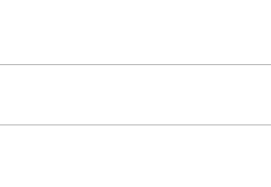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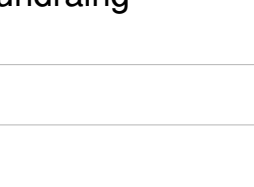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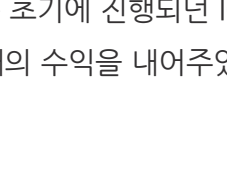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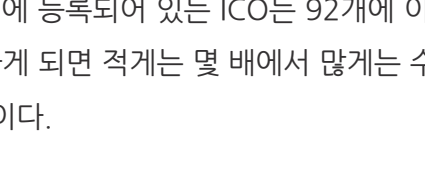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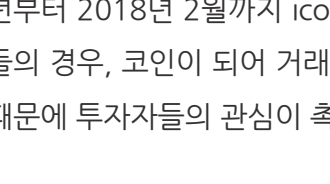
블록체인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코인. 즉 ‘가상화폐’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채굴’ 혹은POW이라고 부르며, 채굴 난이도 증가 및 과도한 전력 소모로 인한 에너지 낭비로 인해,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은 지분을 통해 증명하는 ‘POS’이다. “ POS”뿐만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증명하는 “POI”등 많은 방식이 나오게 되었다.

1.3 코인 개발에서 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 프로세스

1.3.1 코인 거래소

블록체인으로 인해 투명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 개인간의 거래는 여전히 사기의 위험이 존재한다. 사기의 위험을 예방하고 다양한 코인 거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거래소이다. 거래소가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 파악이 불필요하다.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의 편의성을 올려주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

‘Coinmarketcap’에 등록된 총 거래소의 수는 198개이며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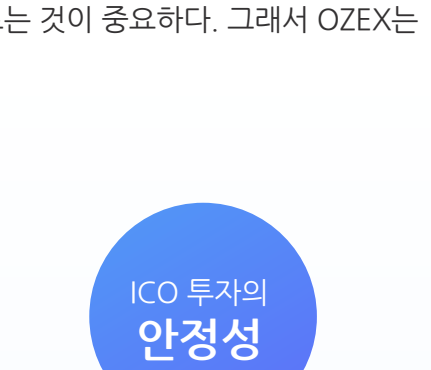


그 외에도 중소형 거래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본인의 희소성, 독창성을 내세우기 위해 보편적이지 않은 코인 혹은 토큰 등을 상장시켜 거래하기도 한다.

2

OZEX

2.1 OZEX란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는 울루루(Uluru)가 있는 ‘호주’를 의미하는 호주 방언Aussie의 준말인 OZ와 거래소를 의미하는 Exchange의 합성어로 코인 세계의 중심 거래 코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호주 코인이면서 ICO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Uluru’(에어즈락, 세상의 중심으로 불리는 바위)

